

##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성인 여성의 요구도 조사

곽정은<sup>1)\*</sup> · 이서연<sup>2)\*</sup> · 이상훈<sup>2)</sup> · 고광석<sup>2)†</sup>

<sup>1)</sup>이화여자대학교 임상보건과학대학원, <sup>2)</sup>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 A Survey for Needs and Preference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on Mass Media for Korean Female Adults

Jeong-Eun Kwak<sup>1)\*</sup>, Seo-Yeon Lee<sup>2)\*</sup>, Sang-Hoon Lee<sup>2)</sup>, Kwang Suk Ko<sup>2)†</sup>

<sup>1)</sup>Graduate School of Clinical Health Science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sup>2)</sup>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 and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Corresponding author

Kwang Suk Ko  
Department of Nutritional  
Science and Food Management,  
Ewha Womans University,  
Daehyeon-dong, Seodaemun-gu,  
Seoul 120-750, Korea

\*The authors equally contributed  
to the research.

Tel: (02) 3277-6859  
Fax: (02) 3277-2862  
E-mail: kko@ewha.ac.kr

Received: September 5, 2014  
Revised: December 19, 2014  
Accepted: December 30, 2014

#### 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eferences and needs of typical Korean females adults for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provided by the mass media.

**Methods:** A total of 343 females (77 in their 20s, 85 in their 30s, 88 in their 40s and 93 in their 50s) residing in the Seoul/Gyeonggido area was surveyed on general characteristics, main source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and needs for sources and contents of nutrition information.

**Results:** The survey showed that typical Korean females obtained knowledge of food and nutrition mainly through the Internet (30.4%) and broadcasting (29.0%). Typical Korean females were interested in 'dietary management for weight control' (21.9%),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sease' (20.0%), 'food safety' (16.8%), 'proper dietary habits' (14.6%), 'cookery' (11.8%), 'functional foods' (9.6%), 'restaurant details' (3.5%) and 'life-cycle-specific dietary guideline' (1.6%). Needs for food and nutrition program forms on TV were 'educational programs' (34.3%), 'documentaries' (20.8%), 'expert lecture-style' (13.0%), 'entertainment programs' (11.9%), 'expert conversation' (11.4%), 'news-style' (4.6%) and 'public campaign advertisements' (4.0%). On the Internet, 38.6% of the respondents preferred to get information provided by food and nutrition-related institutions (38.6%) while 26.1% preferred webtoons for nutritional information. The favored forms in mobile applications were 'monitoring their diets' (29.5%), 'data-based texts information' (21.4%), 'experts feedback' (20.6%), 'communities' (15.1%) and 'games' (13.1%). The rates of the preference to obtain information from experts such as nutritionists and dietitians and doctors - or dietitian turned reporters increased markedly with older ages.

**Conclusions:** Since the mass media is a main source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for the general public, the effectiveness and accuracy of the information provided should be enhanced by taking the needs of the public into account. The quality of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by involving more nutrition experts.

*Korean J Community Nutr* 19(6): 550~557, 2014

**KEY WORDS** food nutrition information, mass media, information needs

## 서 론

오늘날 늘어난 기대수명에 따라 현대인들의 삶의 목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을 지향하는 웰빙(Well-being)의 추세로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 따라 각종 ‘건강’ 관련 콘텐츠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바른 식생활’에 관련한 정보와 지식 제공의 횟수와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대중매체가 사회 안팎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달해주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어, 영양정보의 경우도 대중매체를 통해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Kim 2009). 보건의식 행태조사(Jo 등 2010)에서도 조사대상자의 2/3정도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 평소 건강에 관한 지식을 가장 많이 습득한 것으로 발표했다. 더욱이 정보를 접한 10명 중 6명은 어떤 식으로든 연관행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Choi 등 2003),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영양을 비롯한 건강정보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가정 및 국가의 건강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Kang 1998), 대중매체를 통한 식품영양정보 습득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증가된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 제작에 있어 합리적인 기준이 있기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대중의 이목을 끌기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Jang & Moon 2003; Yoon 등 2004; Jeon 2008). 또한 바람직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정보의 내용을 이용자 수준에 맞게 가공하여(Cho 등 2006), 대중에게 친숙하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에도 불구하고(Wansink 2006), 대중매체가 건강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도 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반면(You & Song 1990; Park & Lee 1998; Kim 1998; Jeon 2008), 대중들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한 연구는 부족하다. 최근에는 정보전달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음에 따라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대중의 태도 또한 기존의 상황과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어, 각 매체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대중의 요구도를 파악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품영양정보 제공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성인 여성의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각 매체별 형식, 주제에 대한 요구도와 정보제공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 여성에 대한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방향의 요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배부한 후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서울의 한 지역보건소 비만교실 참여자 5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 10월 연구자가 작성한 1차 설문지를 통한 예비조사를 거친 후 그 설문 과정과 결과에 따라 설문지의 활용 및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문항의 내용과 형식을 수정·보완하여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2012년 11월 1일부터 12월 11일 까지 서울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20~50대 일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배부한 설문지는 총 364부였으며, 이 중 응답 내용이 부족한 21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킨 후, 총 343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 2. 연구방법

설문지의 조사 항목은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식습관 점수,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관심도 및 이용행태,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에서 다루어지기를 원하는 정보 주제와 형태의 요구 사항을 묻는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묻는 문항으로 5개의 선택사항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요구도에 관한 문항으로는 기존의 관련연구(Kim 2005; Yong & Moon 2002)를 참고하여 식품영양정보의 관심 주제와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매체의 형식에 관한 요구도를 각 항목에 따라 4~9개의 선택사항을 주어 이중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정보 제공자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문항은 5개의 선택사항 중 1가지를 선택하도록 구성하였다.

### 3. 자료분석방법

조사된 자료는 모두 SPSS (IBM SPSS Statistics, Ver. 21,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대중매체별 식품영양정보의 주제, 형식 요구도는 빈도와 백분율로 나타내고 순위화 하여 제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주요 정보원과 정보제공자 선호도는  $\chi^2$ -검정을 실시하여 유의한 차이를 갖는 값( $p < 0.05$ )을 제시하였다.

## 결 과

###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는 총 343명으로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별 분포는 20대가 77명 (22.4%), 30대가 85명 (24.8%), 40대가 88명 (25.7%), 50대가 93명 (27.1%)을 나타냈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51명 (14.8%)이었고, 전문대·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240명 (69.7%), 대학원 재학 및 졸업은 52명 (15.2%)으로 분포되었다. 직업별로는 전문가, 관리자, 행정 및 사무직이 232명 (67.6%), 서비스·판매·기능직이 24명 (7.0%), 학생이 13명 (3.8%), 기타(주부 또는 무직자) 74명 (21.6%)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participating in the survey

Division	Variables	N (%)
Age (years)	20	77 ( 22.4)
	30	85 ( 24.8)
	40	88 ( 25.7)
	50	93 ( 27.1)
	Total	343 (100.0)
Education	High school or under	51 ( 14.8)
	College, university	240 ( 69.7)
	Graduate degrees	52 ( 15.2)
	Total	343 (100.0)
Occupation	Experts, directors, administrator, office workers	232 ( 67.6)
	Service·sale·technical workers	24 ( 7.0)
	Students	13 ( 3.8)
	Miscellaneous	74 ( 21.6)
	Total	343 (100.0)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주요 정보원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를 얻는 방법을 Table 2에 제시하였는데, 연령별, 교육정도, 직업에 따라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주요 정보원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0~40대 군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식품영양정보 습득이 비교적 높은 것에 반해, 50대 군에서는 TV나 라디오를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001$ ). 교육정도에 따라서는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TV나 라디오에서 식품영양정보를 얻는 비율이 높고, 인터넷 이용 비율이 낮은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하여 식품영양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고 TV나 라디오 이용 비율이 낮아지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p < 0.005$ ). 또한 직업에 따라서는 전문가, 관리자 집단 및 행정, 사무직 집단과 학생집단에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왔고, 서비스, 판매, 기능직 집단과 기타 집단에서는 TV나 라디오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0.001$ ).

### 3.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 주제에 대한 요구도

조사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의 주제에 대한 선호도는 Table 3과 같다. 다이어트를 위한 식사지침의 요구도가 가장 높았고(21.9%), 2위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사지침(19.9%), 3위는 식품의 안전 및 유해성(16.8%), 4위는 균형 잡힌 알맞은 식습관(14.6%), 5위는 요리법(11.8%), 6위는 식품의 효능(9.6%), 7위는 맛집 정보(3.5%), 8위는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정보(1.6%)로 나타났다.

**Table 2.** Main sources of mass media for foods and nutrition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N (%)				$\chi^2$ value	
	TV Radio	News papers	Internet	Application		
Age(years)	20	31 (40.8)	1 ( 1.3)	44 (57.9)	0 (0.0)	46.539**
	30	36 (42.4)	3 ( 3.5)	46 (54.1)	0 (0.0)	
	40	37 (42.0)	2 ( 2.3)	49 (55.7)	0 (0.0)	
	50	57 (61.3)	15 (16.1)	20 (21.5)	1 (1.1)	
Education	High school or under	31 (60.8)	5 ( 9.8)	14 (27.5)	1 (2.0)	21.075*
	College·university	115 (48.3)	12 ( 5.0)	111 (46.6)	0 (0.0)	
	Graduate degrees	15 (28.3)	4 ( 7.5)	34 (64.2)	0 (0.0)	
Occupation	Expert·Administer·Office worker	96 (41.4)	11 ( 4.7)	125 (53.9)	0 (0.0)	36.941**
	Service·Sale·Technical worker	16 (66.7)	2 ( 8.3)	5 (20.8)	1 (4.2)	
	Students	4 (33.3)	0 ( 0.0)	8 (66.7)	0 (0.0)	
	Etc.	45 (60.8)	8 (10.8)	21 (28.4)	0 (0.0)	

\*:  $p < 0.05$ , \*\*:  $p < 0.01$  by  $\chi^2$ -test

**4. 매체별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매체별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는 연령별, 교육정도, 직업에 따라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매체별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는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분류 없이 조사 대상자 전체의 요구도를 제시하였다.

**1) 방송프로그램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

각 매체별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해서는 교양 프로그램식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으며 (34.2%), 그 다음은 다큐멘터리 형식 (20.7%), 전문가의 강연식 (13.0%) 순서로 응답 건수가 높았다. 4위로는 오락프로그램 형식 (11.9%) 이, 5위는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형식 (11.4%)이 비슷한 선호도를 보였으며, 6위는 뉴스형식 (4.6%), 7위는 공익광고 형식 (4.0%)으로 소수의견을 나타냈다 (Table 4).

**2) 인터넷의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

인터넷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해서는 각종 식품 및 영양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권고 형식이 가장 많이 요

**Table 3.** Needs of the subjects for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Variables	N (%)	Ranking
Dietary guidelines for weight control	148 (21.9)	1
Dietary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diseases	135 (19.9)	2
Food safety and hazard	114 (16.8)	3
Proper dietary habits	99 (14.6)	4
Cookery	80 (11.8)	5
Functional Foods	65 ( 9.6)	6
Restaurant details	24 ( 3.5)	7
Life-cycle-specific dietary guidelines	11 ( 1.6)	8
Miscellaneous	1 ( 0.1)	9

Multiple responses (Choose two)

**Table 4.** Needs for food and nutrition program forms on TV

Variables	N (%)	Ranking
Educational programs	231 (34.2)	1
Documentaries	140 (20.7)	2
Expert lecture-style	88 (13.0)	3
Entertainment programs	80 (11.9)	4
Moderator and expert conversations	77 (11.4)	5
News-style	31 ( 4.6)	6
Public campaign advertisements	27 ( 4.0)	7
Miscellaneous	1 ( 0.1)	8

Multiple responses (Choose two)

구되었고 (38.6%), 식품 및 영양에 관한 내용의 정보성 웹툰 형식을 그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였다 (26.1%), 3위는 보건의료전문인의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의 에세이 형식 (19.6%)으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4위는 보건의료전문인과의 온라인 상담 서비스 형식 (8.8%), 5위는 식품 및 기능성식품 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홍보성 정보 형식 (5.8%) 순으로 요구도가 나타났다 (Table 5).

**3)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은 섭취식단을 기록, 섭취식품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형식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5%). 2위로 데이터 기반의 식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텍스트 형식 (21.4%), 3위는 수집된 정보를 전문가에 의해 피드백을 받는 형식을 요구하였다 (20.6%). 4위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연결을 통한 사용자들 간의 소통 제공 형식 (15.1%), 5위는 식품영양과 관련된 게임 및 동영상 등 흥미 위주 형식 (13.1%) 순으로 응답률이 나왔다 (Table 6).

**Table 5.** Needs for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forms on the internet

Variables	N (%)	Ranking
Recommendation provided by Food and nutrition-related institutions	254 (38.6)	1
Informational webtoons	172 (26.1)	2
Health care professional's essay in websites, blogs	129 (19.6)	3
On-line counseling services with Health care professionals	58 ( 8.8)	4
Information provided food and health supplement food companies	38 ( 5.8)	5
Miscellaneous	7 ( 1.1)	6

Multiple responses (Choose two)

**Table 6.** Needs for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forms of mobile applications

Variables	N (%)	Ranking
Monitoring dietary intake records	189 (29.5)	1
Data-based texts	137 (21.4)	2
Experts feedback	132 (20.6)	3
Communities through the user-to-user communication	97 (15.1)	4
Interest-oriented information (games, videos, etc.)	84 (13.1)	5
Miscellaneous	2 ( 0.3)	6

Multiple responses (Choose two)

**Table 7.** Needs for provider qualification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s		Doctors	Nutritionists	Doctors- or dietitians-turned reporters	General reporter	Miscellaneous	$\chi^2$ value
		N (%)					
Age (years)	20	25 (32.5)	18 (23.4)	13 (16.9)	20 (26.0)	1 (1.3)	27.030*
	30	15 (17.6)	30 (35.3)	29 (34.1)	9 (10.6)	1 (1.2)	
	40	19 (21.6)	31 (35.2)	21 (23.9)	17 (19.3)	0 (0.0)	
	50	17 (18.3)	22 (23.7)	34 (36.6)	16 (17.2)	2 (2.2)	
Education	High school or under	15 (29.4)	11 (21.6)	13 (25.5)	10 (19.6)	1 (2.0)	5.233
	Undergraduate degrees	50 (20.9)	75 (31.4)	67 (28.0)	43 (18.0)	2 (0.8)	
	Graduate degrees	11 (20.8)	15 (28.3)	17 (32.1)	9 (17.0)	1 (1.9)	
Occupation	Experts·administrators·office workers	21 (21.4)	25 (25.5)	30 (30.6)	19 (19.4)	3 (3.1)	22.230
	Service·sales·technical workers	31 (23.1)	39 (29.1)	34 (25.4)	29 (21.6)	0 (0.0)	
	Students	4 (16.7)	9 (37.5)	8 (33.3)	2 ( 8.3)	0 (0.0)	
	Miscellaneous	4 (30.8)	7 (53.8)	0 ( 0.0)	2 (15.4)	0 (0.0)	

\*:  $p < 0.05$  by  $\chi^2$ -test

###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자에 대한 선호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를 얻는데 있어서 대상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신뢰가 가는 제공자를 선택한 결과는 Table 7와 같다. 분석된 결과를 보면, 연령에 따른 정보 제공자의 선호도에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정도, 직업에 따른 응답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요구하였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사 및 영양사와 같은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사 및 영양사 출신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 찰

최근 정보전달의 환경이 변화되고,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관심과 식생활에서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연구적 배경을 토대로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방향을 제시해보고자, 본 연구는 일부 성인 여성의 주요 정보원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요구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령별로는 비교적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수준은 전문대·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69.7%로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직업별로는 전문가·관리자·행정·사무직이 67.6%로 많았다. 대상자들의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를 얻는 방법을 분석한 결과, 연령, 교육정도, 직업에 따라 유의하게 분포차이를 보였는데, Kim(2005)과 Jeon(2008), Kim(2009)의 연구에서처럼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50대,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TV가 주요 정보원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낮은 20~40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식품영양정보의 획득 비율이 높았고, 직업별로는 전문가·관리자·행정·사무직 집단과 학생집단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고, 서비스·판매·기능직 집단과 기타(주부 또는 무직자) 집단에서는 TV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젊은 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전문가, 관리자, 행정, 사무직 집단과 학생집단은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도가 높고 익숙하기 때문에 비교적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하고 즉각적인 정보 습득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대상자들이 요구하는 식품영양정보의 주제에 대한 선호도를 순위화 해보면, 1위는 체중조절을 위한 식사지침, 2위는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사지침, 3위는 식품의 안전 및 유해성, 4위는 균형 잡힌 알맞은 식습관, 5위는 음식과 요리법, 6위는 식품의 성분 및 효능, 7위는 맛집 정보, 8위는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정보로 나타났다. Jeon 등(2006)의 조사에서는 1위가 질병관리 및 식이요법, 2위가 웰빙식품의 기능성, 3위는 식품의 안전 및 유해성 관련 정보, 4위는 영양소 관련 정보, 5위는 균형잡힌 식생활 관련 정보, 6위는 웰빙식품의 성분 정보, 7위는 웰빙음식의 조리법, 8위는 생애주기별 웰빙식품정보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대부분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일부 성인여성들이 비만을 포함한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식이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식품위생에 대한 문제에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들의 각 매체별 식품영양정보의 형식에 대한 요구도를 살펴보면, 방송매체에 대해서는 교양프로그램과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식품영양정보를 얻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프로그램에 대한 Yoo(2001)의 연구에

서는 전문가의 강연식과 사회자와 전문가의 대화식을 가장 많이 원했으며, Kim(2005)의 연구에서는 다큐멘터리 형식이 가장 많았고, 사회자 전문가의 대화형식, 오락프로그램 형식의 순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강 및 식품영양과 같은 전문분야에 교육적인 것과 동시에 오락성을 추구하여 정보의 내용은 전문적이면서도 형식은 자유로운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쇄매체에서도 전문인과 전문가의 연재물, 생활정보성 기사 형식에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여 전문성과 활용성에 대한 높은 요구도를 읽을 수 있었다. 한편 인터넷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해서는 Kang 등(2004)의 연구에서와 같이 각종 식품 및 영양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권고형 정보를 가장 많이 신뢰하였고, 정보성 웹툰 같은 오락성과 멀티미디어적인 요소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게, 요약적으로 가공하여 필요한 정보를 부담 없이 습득하고자 하는 새로운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Lim(2010)이 조사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산업체(식품회사, 식품기구제조회사, 인증업체 등)가 76.1%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정부기관, 관련학회, 연구기관, 대학교)은 15.3%, 개인이나 개인단체가 8.6% 순으로 조사되어 전문적인 요소를 갖춘 공공기관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인터넷의 환경이 발전하고 있고 멀티미디어 요소가 점점 다양화되고 확대되면서 정보성 웹툰과 같이 대중들의 정보 형식에 대한 기대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어 식품영양에 관한 정보에서도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정보 형식에 대해서는 섭취식단이나 식품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에 맞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획득하기를 선호하여 휴대폰을 통한 애플리케이션 특성상 개인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며 다른 매체의 정보형식 요구도와 마찬가지로 보다 실용화된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식품영양정보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 전체적으로 영양학자 또는 영양사와 의사 및 영양사 출신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를 요구하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사 및 영양사와 같은 보건의료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사 및 영양사 출신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 Kim(2009)의 연구에서도 뉴미디어 발달로 인해 대중매체의 속성이 변화하고 대중들의 정보욕구도 전문적 속성으로 바뀌어 간다고 제시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비슷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의 대상자에서 전문가에 대한 선호도가 비교적 높게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전문적인 정보라고 해서 전문지식화 되거나 학술화 되는 것은 지

양하는 경향을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어, 이것을 반영하여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전문지식을 좀 더 쉽고, 흥미롭게 구성하여 대중들이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일부 서울·경기 지역의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교육정도 및 직업군에서는 대상자의 속성 비율이 균등하지 않아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설문지의 각 문항에 중복응답을 선택하여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요구도를 파악하기 어려워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요구도의 경향을 파악하는 정도로 그치고, 최근의 현황과 비교하지 못해 구체적인 개선점을 제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향후 이를 보완하여 대규모의 질적·양적 분석이 꾸준히 이루어져 대중의 요구도를 반영해 정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대중매체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관심과 식생활에서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연구적 배경을 토대로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의 제공방향을 제시해보고자 연구 대상자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주요 정보원과 정보의 여러 가지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연구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일부 성인여성 343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통해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은 연령별로는 비교적 고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수준은 전문대·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가 많았고, 직업별로는 전문가·관리자·행정·사무직이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의 주요 정보원은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50대, 낮은 교육수준일수록 TV가 주요 경로로 나타났으며,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20, 30, 40대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통한 식품영양정보의 획득 비율이 높았고, 전문가·관리자·행정·사무직 집단과 학생집단에서 주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서비스·판매·기능직 집단과 기타 집단에서는 TV를 이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중매체 식품영양정보의 주제에 대한 선호도는 체중조절, 질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식사지침, 식품의 안전 및 유해성 등의 순으로 조사됐고, 각 매체별 형식에서 방송프로그램은 교양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으며, 그 다음은 다큐멘터리 형식, 전문가의 강연식, 오락 프로그램식 등의 형식 순서로 선택되었다. 인터넷 정보는 각종 식품 및 영양관련 기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권고 형식이 가장 많이 요구되었고, 그 뒤로 식품 및 영양에 관한 내용의 정보성 웹툰 형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식품영양정보의 형식

은 섭취식단을 기록, 섭취식품의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형식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영양정보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연구 대상자 전체적으로 영양학자 또는 영양사와 의사 및 영양사 출신 전문가와 같은 전문가를 요구하였는데, 연령대가 낮을수록 의사 및 영양사와 같은 보건 의료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선호하였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사 및 영양사 출신의 전문가로부터 정보를 얻을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중매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와 같은 대중의 식품영양정보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TV에서는 연령대가 높고, 낮은 교육 수준의 대중을 겨냥해 프로그램의 수준을 조절하고, TV 의존도가 높은 그들의 이해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되 너무 어렵지 않도록 기획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의 경우 연령대와 교육 수준이 다양한 대중을 위하여 전문가 집단 및 기관에서 활발히 정보를 제공하되 웹툰, 동영상 등과 같은 텍스트 형식 이외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 할 것을 권고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섭취 식단을 기록하고 섭취 식품을 모니터링하는 식의 정보 요구도가 높은 것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대중들이 정보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식품영양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대중의 관심과 민감도가 높은 체중조절, 질병에 대한 식사관리 뿐만 아니라 식품의 안전 및 유해성 등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식품영양전문가의 활발한 참여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들의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도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References

- Cho JS, Kim KN (1993): Influence of entrance examinees' eating behavior on their health condition. *Korean J Hum Ecol* 2(1): 25-31
- Cho KH, Choi BS, Seo JY, Park GS, Lee IS (2006): The usage of diet and nutriti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y users' age.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6(5): 542-549
- Choi CJ, Kim KS, Kim HG, No YG, Lee MJ, Kim SJ (2003): A study on use of health care information resources. *J Korean Med Assoc* 46(7): 651-660
- Han SJ, Seo EY, Kim WK (2004): A comparative study on acquiring and using patterns of information about food and nutrition between medical personnel and non-medical personnel.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4(3): 302-308
- International Food Information Council Foundation (1998): Improving public understanding: guidelines for communicating emerging science on nutrition, food safety, and health. *J Natl Cancer Inst* 90(3): 194-199
- Jang YJ, Moon HK (2003):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in television programs. Proceedings of 2003 Autumn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pp.1086-1087
- Jeon EM (2008): The effect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for mass media on nutritional knowledge of adult. M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1-102
- Jo JK, Son CG, Song TM, Shin CW, Yoon GW, Lee NH, Lee SY, Lee YH, Jung MS, Jo SY (2010): The fourth Seoul Citizens Health Indicators Survey - Health Knowledge and Behaviors -,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pp.1-424
- Kang HK, Kang MH, Yu KH, Ly SY (2004): Monitoring of on-line nutrition information-analysis of meta data. *J Nutr Health* 37(8): 688-700
- Kang NM, Hyun TS (1998): A strategy for improvement of health and nutrition management of Korean women. *J Korean Acad Soc Nurs Educ* 4(1):28-37
- Kim CI (1998): Reality of report about nutrition. *J Nutr Health* 31(4):834-835
- Kim SJ (2005): Analysis of Viewing Behaviors and Needs for Health Information Program on Television. M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pp. 1-75
- Kim SJ (2009): Study on state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healthcare/pharmaceutical newspapers. MS thesis, Hanyang University, pp. 1-85
- Lee HY, Lim TY, Lee JH, Park MK, Chae MJ, Bae HJ (2010): Assessment using practices and quality of food safety information on the internet. *Korean J Food Cookery Sci* 26(3): 229-237
- Lee JW, Kim JD, Ji AL (2010): A present condition of smartphone health applications. Proceedings of 2010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of Design, pp.210-211
- Lee JW, Lee BK (1998): Analyzing the producer's attitudes toward specialist's advice and the panelist constitution of nutrition-related TV programs. *Korean J Community Nutr* 3(2): 317-328
- Lee JY, Yoo HS (2002): A study on health program of broadcasting media. *J Korean Soc Health Educ Promot* 19(3): 35-49
- Lee YM, Back SR, Park HJ, Shim KS, Lee HJ, Chun HK (2006): Consumer needs for well-being food related information by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17(3): 175-182
- Lim DW, Yoon SN (1998): Understanding and use of media monitoring. communication books, Seoul, pp.1-180
- Moon HK, Min JH, Kim JN (2010): Monitoring diet and health related content in terrestrial TV programs for young children. *J Korean Health Educ Promot* 27(3):85-96
- Park SJ, Lee YH (1998): Effects of media on nutritional knowledge and dietary behavior. *J East Asian Soc Diet Life* 8(2): 137-146
- Purcell GP, Wilson P, Delanothe T (2002): The quality of health information on the internet. *Br Med J* 324: 557-558
- Wanisk B. (2006): Position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food and nutrition misinformation. *J Am Diet Assoc* 106(4): 601-607
- Yong MJ, Moon HK (2002): Analysis of food and nutrition informations for the public in the newspaper and magazine.

- Proceeding of 2002 Autumn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pp.962
- Yoon EY, Ji SM, Seo JS, Kim KW, Bae HJ (2004): Monitoring of nutrition information on TV. Proceedings of 2004 Autumn Symposium of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Nutrition, pp.131
- Yoon JS (1998): Mass media for proliferation of nutrition information: role of professional and government. *J Nutr Health* 31(4): 836-839
- Yoo HJ, Song KH (1990): A study on the nutritional knowledge, attitudes, and dietary patterns of housewives in Seoul. *Fam Environ Res* 28(2): 47-55